

お名前 () さん

평소 인적이 없어 한적하던 한강 밤섬은 오늘 하루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. 봄 가을로 일 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밤섬 대청소 날이기 때문입니다. 서울시에서 파견된 환경미화원들은 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겨우내 밀려든 쓰레기를 살살이 치우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.